
유럽지역 주관적 웰빙 워크숍 참가결과 보고

(European data producer's workshop on subjective well-being)

2014. 7.

I. 개 요

- **회의명** : 유럽지역 주관적 웰빙 워크숍
(European data producers' workshop on subjective well-being)
- **주 최** : OECD 통계국
- **주 제** : 주관적 웰빙 측정과 정책적 활용
 - * 세션별 의제 : 방법론적 이슈, 유럽 각국 통계청의 주관적웰빙 측정 경험공유, 주관적웰빙 데이터의 정책적 활용, OECD 가이드라인의 향후 방향
- **일자 및 장소** : '14. 6. 24.(월) ~ 6. 25.(화), 프랑스 파리 OECD 본부
- **참가자** : 20여개국 총 90여명 (* 참가자 명단은 붙임1 참조)
 - (유럽 통계청) 영국,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등 13개국 통계청 담당자
 - (국제기구) Eurostat 사회통계국장,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고용사회국장 등 주요 국제기구의 주관적 웰빙관련 부서장
 - (학계 및 민간기관) 영국 Warwick 대학, 독일 베를린 대학, 영국 공공정책 연구기관인 Legatum 연구소, 갬럽, 코카콜라 등 민간기구
- **출장목적**
 - 동 워크숍은 OECD 통계국에서 주관적 웰빙 측정 및 정책적 활용 경험공유를 위해 대륙별로 개최중인 지역회의*로,
 - * 아메리카 지역('13.9월, 뉴욕), 유럽 지역('14.6월, 파리), 아태 지역('15.11월, 한국 예정)
 - 동 워크숍 참가를 통해 웰빙 측정의 개념 및 유효성 검토, 유럽 지역의 웰빙 측정 방법론 습득 및 국가별 사례 공유를 통한 선진 논의 동향을 파악
 - 또한 OECD 통계국에서 한국 통계청에 요청한 「아태지역의 주관적 웰빙 워크숍」 개최('15년) 준비의 일환으로 유럽지역에서 개최되는 동 워크숍에 참가하여 회의운영방식 등 전반적인 상황파악

II. 워크숍 주요 내용

□ 회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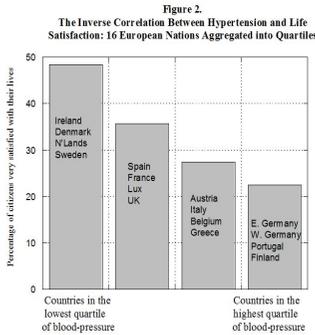
- 총 7개 세션으로 구성, 유럽통계청 13개국의 사례발표 및 세션별 토론 진행
 - * 세션별 발표주제는 참고 1 참조
 - [세션1] 주관적 웰빙 측정 개관 (주관적 웰빙을 왜 측정해야 하는가?)
 - [세션2] 방법론적 이슈
 - [세션3] 측정의 문제
 - [세션4] 국가 통계청의 측정 사례(패널 토론)
 - [세션5-6] 주관적 웰빙 측정결과의 정책적 적용
 - [세션7] OECD 가이드라인을 위한 다음 단계(패널 토론)

□ 세션별 논의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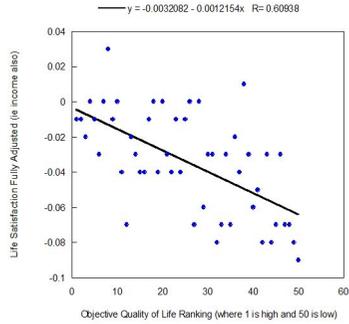
세션 1 주관적 웰빙 측정의 개관(왜 측정해야 하는가?)

- ❖ **Why measure subjective well-being?** (Andrew Oswald, 영국 Warwick대학교)
 - 주관적 웰빙은 사회가 나아가야 할 합리적인 방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음
 - 과거에는 경제성장이 국가의 발전을 측정하는 중요지표였지만, 이스터린 파라독스를 통해서 경제성장이 행복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되었으며, 사람들은 상대적인 소득이나 계층에 더 영향을 받고 있음
 - 또한 주관적 웰빙은 건강과도 관련이 높으며, 최근의 연구들은 주관적 웰빙과 객관적인 삶의 질과의 관련성을 증명하고 있음

<고혈압과 삶에 대한 만족도 사이의 관계>



<객관적인 삶의 질과 삶의 만족도(미국)>



- 스티글리치 위원회에서는 주관적 웰빙 측정을 위해 삶의 만족도와 정서 균형의 측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음
- 국가의 웰빙에 기여하는 것은 주로 실업급여, 깨끗한 공기, 낮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낮은 범죄율 등이 대표적인

❖ The OECD Guidelines on Measuring Subjective Well-Being (Conal Smith, 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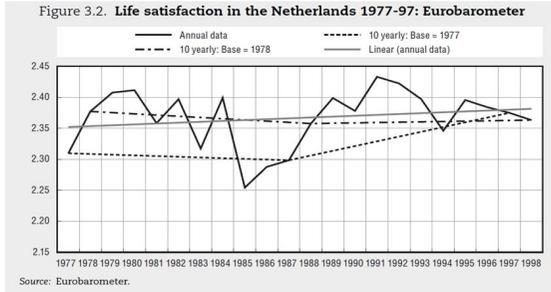
- OECD의 “Better policy for Better life” 의 기초 아래 개발된 BLI(Better Life Initiatives)의 세부 영역 중 하나로 주관적 웰빙이 포함되어 있음
 - 주관적 웰빙에 대한 공식 측정결과의 필요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작성
- 주관적 웰빙은 좋은 정신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크게 세 가지 차원을 측정하는 핵심질문항목(5개)을 구성하였음
 - 5개 핵심항목: 삶에 대한 만족도, 유데모니아*, 정서경험(행복, 걱정, 우울)
- * 유데모니아는 그리스어로 ‘진정한 행복’을 의미하며, OECD 가이드라인에서 “당신의 삶은 얼마나 가치가 있다고 느끼십니까”라는 항목으로 질문

Figure 1.1. A simple model of subjective well-being



- (자료수집방법) 최소한 매년 조사되고, 하위집단으로 분해가능한 표본크기를 유지해야 하며, 척도는 0-10점 척도를 권장

<매년 조사와 10년 주기로 조사의 사례 비교>



- 측정시기에 따라서 응답결과에 차이를 보이지만, 요일별 결과는 스트레스를 제외하면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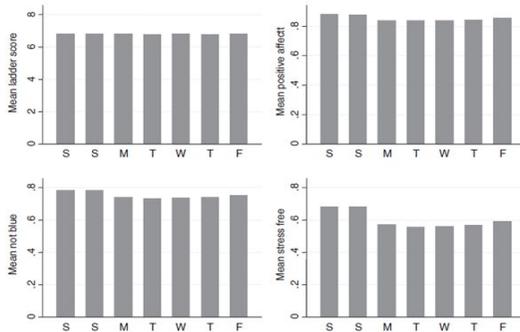


Fig. 1 Ladder scores, positive affect, negative affect, and stress over days of the week.

Source: Deaton, 2011

- 다만 문화적 차이에 따른 영향은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
- 주관적 웰빙 측정결과의 정책적 활용 방법: 1) 전체 웰빙을 모니터링, 2)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 3) 정책의 효과 분석

세션 2

방법론적 이슈

- ❖ UK's methodological approach to measuring personal well-being(Dawn Snape, 영국 통계청)
- 영국에서는 2010-14년 동안 주관적 웰빙 측정과 관련된 다양한 방법론적인 검토*를 실시하였고, 현재 웹사이트에서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 * 문헌검토, 학계자문, 영역과 지표개발, 조사표 개발, 적정 조사 선택, 시험 조사 및 인지실험, 시민의견 수렴 등



- 영국의 주관적 웰빙 측정 관련 설명
 - 측정 항목(4개 항목으로 구성, 0-10점 척도): 삶에 대한 만족도, 유데모니아(worthwhile), 어제의 정서경험-행복(happiness), 불안(anxious)
 - 이를 측정하기 위해 표본크기, 하위집단의 포함범위, 지역비교 가능성, 주제의 다양성, 조사주기, 비용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APS(Annual Population Survey)로 결정함
 - APS 조사의 장점: 대규모 가구조사로 하위집단까지 산출가능하고, 매년 면접 조사를 통해 실시
 - APS 조사의 단점: 혼합방식조사(CAPI/CATI), 주제가 노동력조사에 한정, 패널 요인에 의한 복잡한 표본추출, 가구단위 조사로 가구를 구성하지 않은 개인들은 제외됨

- 주관적 웰빙 측정 항목과 조사항목 개발을 위해 인지실험, 사전실험 등을 통해 조사방법과 조사시기에 따른 예러, 패널 효과 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함
 - (조사방법) 전화조사보다 면접조사에서 개인의 웰빙이 낮게 나타남

	Life sat	Worthwhile	Happy yesterday	Anxious yesterday
Face-to-face interview	-0.171*	-0.165*	-0.132*	0.0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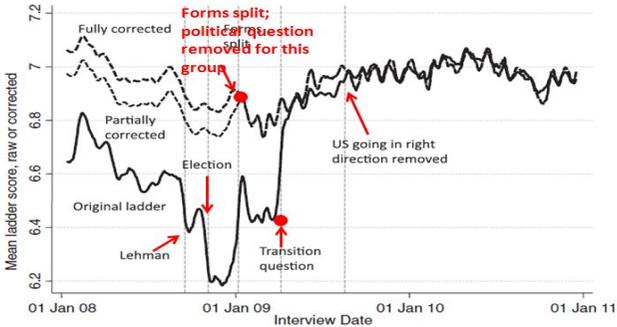
- 향후 척도별 예러, 자료수집 방법에 따른 차이 등을 분석할 예정임

❖ **How questions shape answers and why survey methods matter**(Carrie Exton, 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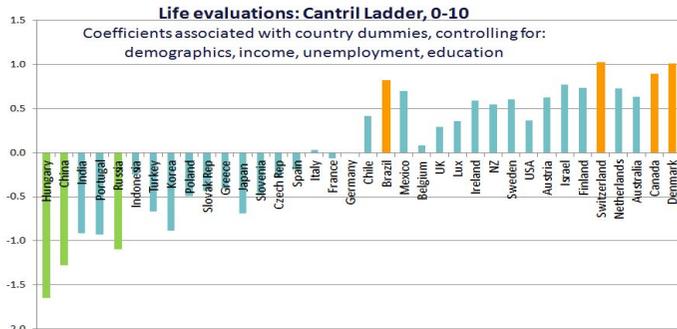
- 조사항목 구성과 조사방법은 크게 질문지 및 응답형식, 순서효과, 조사방법, 응답자 편향(문화적 차이)을 중심으로 살펴봄
- 질문항목 구성시 유의사항: 1) 구체적인 연령표현은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2) 두 가지를 동시에 묻지 않으며, 3) 너무 짧거나 길지 않은 척도, 4) 단어보다는 숫자 척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음
 - 척도구성
 - . (삶의 만족도) 0-10점 척도로 구성했을 때 가장 최선의 결과 도출
 - . (정서경험, 유테모니아) 삶의 만족도 보다는 척도의 영향이 적은 편
 - 회상기간
 - . (삶의 만족도, 유테모니아) 회상기간에 대한 영향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일정시점보다는 “nowdays”, “these days” 사용
 - . (정서경험) 회상기간에 따른 응답결과에서 차이가 발생
 - 정서경험의 경우 ‘어제’를 기준으로 하면 긴 척도(예, 11점 척도)가 좋으며, 어제보다 짧은 시간은 생활시간조사가 적당, ‘어제’보다 긴 회상시간에 대한 질문에서는 짧은 척도(예, 5점척도나 11점 척도) 활용하는 것이 적당함

Timeframe	Risk of recall bias	(assumed) Impact of random events	Most usually seen in...
Right now	Lower	Higher	Experience sampling/ time use diaries (repeated measures)
Last four hours	↓ Higher	↑ Lower	
Yesterday			Large-scale surveys
Last two weeks	↓ Higher	↑ Lower	Small-scale survey and mood(disorder) research
Last four weeks			

- (순서효과) 조사항목 구성순서에 대한 효과는 연구마다 다양하나 일반적인 항목에서 구체적인 항목 순서로 구성하는 것이 좋음
 - 개별 사건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차이가 나타남



- (조사방법) 전화조사시 청중효과로 인해 행복이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 주관적 웰빙을 측정하는 데 있어 면접조사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
- 국가간 표현의 차이, 문화간 차이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검토 필요
 - 인구, 소득, 실업, 교육 등의 변수를 통제한 후 나라간의 주관적 웰빙의 차이



Source: OECD analyses based on Gallup World Poll data. Presented at ISQOLS, Venice, November 2012

❖ **Experimental testing on subjective well-being questions**(Linda Moonen, 네덜란드 통계청)

- 네덜란드에서는 1974년부터 주관적 웰빙을 측정하기 시작함
 - (측정항목) 삶에 대한 만족도와 행복, 5점 척도로 구성
 - 2009년을 기준으로 조사방법 변경

. 혼합방법으로 변경: 인터넷 조사, 전화조사, 면접조사 병행



. 척도변경: 문장척도(5점) -> 숫자척도(0-10)

- 주관적 웰빙 측정항목 척도변경(5점 척도에서 11점 척도)시 응답결과를 차이를 분석을 통하여 적절한 척도구성 방식을 제시함

	Very happy	Happy	Neither happy nor unhappy	Not that happy	Unhappy
1	1	0	0	0	1
2	0	1	0	1	0
3	0	0	0	5	2
4	0	0	1	6	1
5	0	0	8	11	0
6	0	9	30	9	0
7	0	178	63	0	0
8	34	403	8	0	0
9	111	66	0	0	0
10	22	3	0	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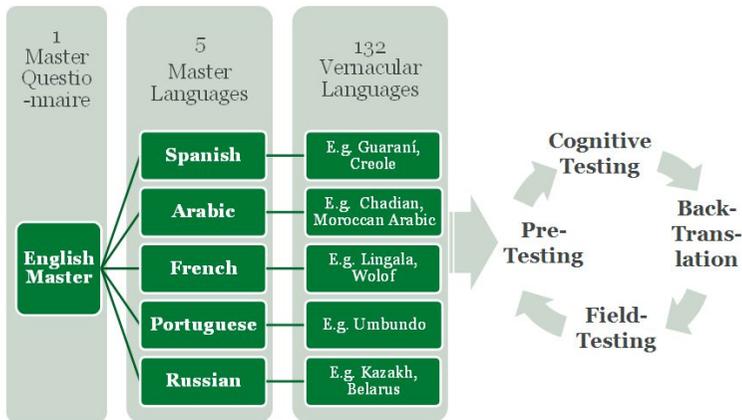
- 척도구성: 1-10점 척도로 구성, 만족도 비율은 7점 이상부터 집계
- 척도구성에 따른 만족도 비율의 차이: 문장척도(5점)시 83.3%가 행복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숫자척도(11점)시 6점 이상은 94.7%, 7점 이상 89.0%로 나타남

□ **The practical challenges of measuring subjective well-being around the world**
(Pablo Diego Rosell, 갤럽)

- 갤럽 World poll 사례 소개
 - 갤럽월드폴은 2006년부터 매년 전화조사로 실시되고 있으며,
 - 전세계의 98%를 포함하고 있으며, 138개 언어로 PAPI, CAPI, CATI 방식으로 조사됨
 - 그 중 주관적인 만족도 항목은 삶에 대한 만족도, 정서경험(10개 정서), 영역별 만족도(목적, 사회적 관계, 재정, 활력, 안전 등)로 구성

◦ 측정에서의 문제점

- 국가간 조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번역과 관련된 문제로 문화에 따라 언어상의 느낌 차이, 개념상의 차이 등이 상이하여 이에 대한 오류를 줄이고자, 여러 단계에 걸친 번역과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고 있음
- 조사표 검토 절차: 시험조사 → 인지실험 → 재번역 → 필드조사



- 향후 유데모니아 측정방법, 생활시간 조사의 활용, 문화적 차이 감소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언급함

세션 3

측정의 문제

☐ **Subjective indicators in How's Austria? - Measurement and results**

(Franz Eiffe, 오스트리아 통계청)

◦ 주관적 웰빙 측정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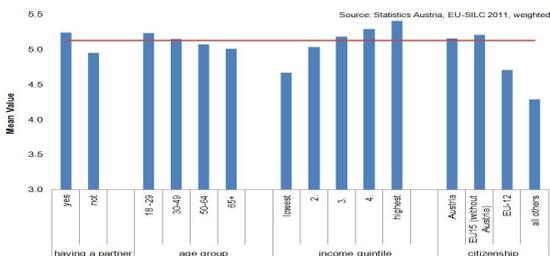
- 웰빙 측정을 위해 소득, 주거, 주요 활동 등의 영역별 만족도와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항목(6점 척도)을 2004년부터 매년 조사

* 표본규모: 13,000명

◦ 기존 조사를 활용한 대리응답의 경향 분석, 주관적 웰빙의 분석결과를 제시함

- 대리응답 결과를 분석한 결과 연령이 낮은 집단에서 대리응답의 비율이 높음

- (분석결과) 유배우자, 나이가 어릴수록, 고소득층일수록 만족도가 높았으며, EU시민이 아니거나, 이혼자, 저소득층에서 만족도가 평균보다 낮게 나타남



- (회귀분석 결과) 물질적 조건, 실업, 나쁜 건강 등은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수준이나 물질적인 불안정이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음

Parameter	Regression-coefficient	Standard error	Pr >	Parameter	Regression-coefficient	Standard error	Pr >
Intercept	4.615	0.152	<.000	Intercept	4.615	0.152	<.000
Demography				Demography			
Ref: women				Ref: women			
men	-0.050	0.019	0.00	men	-0.050	0.019	0.00
age categories				age categories			
age	-0.015	0.004	<.000	age	-0.015	0.004	<.000
age2	0.000	0.000	<.000	age2	0.000	0.000	<.000
Ref: living with a partner				Ref: living with a partner			
living without a partner	-0.272	0.023	<.000	living without a partner	-0.272	0.023	<.000
Ref: born in Austria				Ref: born in Austria			
born abroad	-0.127	0.034	0.000	born abroad	-0.127	0.034	0.000
Ref: Highest income quintile				Ref: Highest income quintile			
lowest quintile	-0.299	0.038	<.000	lowest quintile	-0.299	0.038	<.000
2. quintile	-0.135	0.033	<.000	2. quintile	-0.135	0.033	<.000
3. quintile	-0.092	0.030	0.000	3. quintile	-0.092	0.030	0.002
4. quintile	-0.049	0.031	0.100	4. quintile	-0.049	0.031	0.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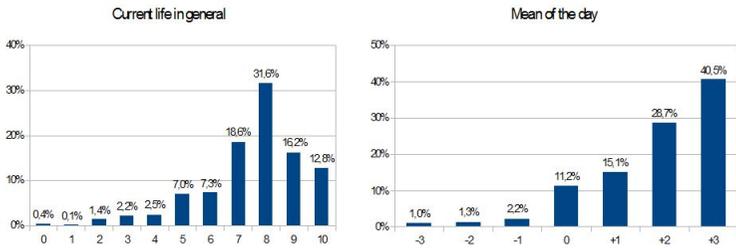
- 향후 대리응답, 번역, 척도 구성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을 언급함

❑ Incorporating subjective well-being in the French time use survey (Laura Castell, 프랑스 통계청)

- 프랑스는 2009-10년 생활시간조사에서 웰빙 측정을 위한 표본 구성: 11살 이상의 1661명, 2665개의 일지
 - * 스티글리치 위원회에서는 생활시간조사에서 각 활동에 대한 정서경험 측정을 언급하였음
- (항목구성) 개인들에게 주거, 직업, 레저, 친구관계,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조사(1-10점 척도), 시간일지에서는 각각의 행동에 대해 얼마나 즐거웠는지 조사(7점 척도, -3 +3)

Décrivez vos différentes occupations de la journée Indiquez les heures de début et de fin (plage horaire de l'activité) grâce à une accolade Décrivez votre occupation	Faites-vous autre chose en même temps ? (lecture, conversation, radio, TV...)	Est-ce un moment agréable ou désagréable ? (de -3 : très désagréable à +3 : très agréable)
18 h 00 - 18 h 10 : Je rentre du travail dans les embouteillages	Conversation avec un collègue	-3 -2 -1 0 +1 +2 +3 (-3) -2 -1 0 +1 +2 +3
18 h 10 - 18 h 20 : Je me repose sur le canapé	J'écoute de la musique	-3 -2 -1 0 +1 +2 +3 -3 -2 -1 0 +1 +2 +3
19 h 00 - 19 h 10 : Je pars pour le supermarché		-3 -2 -1 0 +1 +2 +3 -3 -2 -1 0 +1 +2 +3
19 h 10 - 19 h 20 : Je fais des courses pour le dîner		-3 -2 -1 0 +1 +2 +3 -3 -2 -1 0 +1 +2 +3
19 h 20 - 19 h 30 : Trajet retour du supermarché		-3 -2 -1 0 +1 +2 +3 -3 -2 -1 0 +1 +2 +3
19 h 30 - 19 h 40 : Je surveille ma nièce qui fait ses devoirs		-3 -2 -1 0 +1 +2 +3 -3 -2 -1 0 +1 +2 +3
19 h 40 - 19 h 50 : Je prépare le dîner	Je garde ma nièce	-3 -2 -1 0 +1 +2 +3 -3 -2 -1 0 +1 +2 +3
20 h 00 - 20 h 10 : Je mange avec ma femme, mon frère et ma nièce	Conversation	-3 -2 -1 0 +1 +2 +3 -3 -2 -1 0 +1 +2 +3
20 h 10 - 20 h 20 : Je range la cuisine	J'écoute la radio	-3 -2 -1 0 +1 +2 +3 -3 -2 -1 0 +1 +2 +3
20 h 20 - 20 h 30 : Je discute en ligne sur messagerie instantanée (PC)	Je grignote des biscuits	-3 -2 -1 0 +1 +2 +3 -3 -2 -1 0 +1 +2 +3

- (조사결과 차이) 시간일지에서는 부정적인 응답이 매우 적으며,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와 시간일지에서의 응답결과는 차이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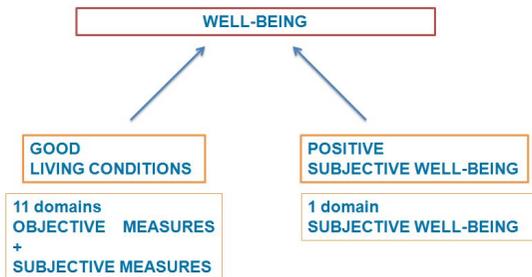


- 기쁨을 느끼는 행동으로는 레저, 개인관리 시간의 평균이 높았으며, 일/교육 시간은 평균이 낮게 나타남
- 응답결과에 있어 개인들간의 차이보다는 행동의 맥락이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즉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오후나 저녁시간에 사람들은 더 기쁜 감정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The Equitable and Sustainable Well-being report and ISTAT's approach to measuring subjective well-being(Adolfo Marrone, 이탈리아 통계청)

- 이탈리아 통계청에서 2010년 착수한 BES* 이니셔티브는 웰빙, 공평, 지속가능성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12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 * **B**enessere **E**quo e **S**ostenibile(웰빙, 공평, 지속가능성)

- 12개 영역: 건강, 교육, 일과 삶의 균형, 경제적 웰빙, 사회관계, 정치제도, 안전, 주관적 웰빙, 문화자원, 환경, 조사연구, 서비스의 질
- (BES 지표선정기준) 주관적 지표와 객관적 지표의 혼합, 간결성, 공식통계, 시계열, 지역간 비교 등
- (프레임워크) 웰빙에는 좋은 삶의 조건과 긍정적인 주관적 웰빙*이 영향을 미침



* 주관적 웰빙: 삶에 대해 만족한다는 사람(8-10점 응답), 여가시간에 매우 만족한다는 사람, 향후 5년후 자신의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로 측정

□ An overview of the EU-SILC 2013 ad-hoc module on subjective well-being(Jean-Louis Mercy, Eurostat)

◦ 유럽통계처에서는 “GDP and Beyond”의 기초에 따라 EU-SILC* 2013 조사의 추가 주제 모듈로 ‘주관적 웰빙’을 선택함

* EU-SILC는 31개 국가의 25만가구, 50만명 규모의 조사로 매년 소득, 일, 재정, 주거 등의 140여개의 항목과 추가 주제모듈 20개 항목이 조사됨

- EU-SILC 조사를 활용하는 데 있어 이점은 통합조사이고, 표본크기가 하위 집단으로 세분화가능한 수준이며, 삶의 질 관련 차원이 포함, 개인수준의 data 수집이 가능하며, 패널분석도 가능함
- 반면, 조사표 구성에 있어 질문항목, 순서, 번역, 척도구성, 그리고 대리응답의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함

* ESS(European Social Survey)에서 다루고 있는 세부영역과 주관적 지표의 사례들

	Objective information	Subjective information
Material living conditions		Satisfaction with financial situation Satisfaction with accommodation
Productive or main activity		Job satisfaction
Health		Being very nervous Feeling down in the dumps Feeling calm and peaceful Feeling downhearted or depressed Being happy
Education		
Leisure and social interactions		Satisfaction with personal relationship Anyone to discuss personal matters Anyone to get help from Satisfaction with time use Satisfaction with commuting time
Economic and physical safety		Physical security
Governance and basic rights		Trust in the political system Trust in the legal system Trust in the police Trust in others
Natural and living environment		Satisfaction with recreational /green Satisfaction with living environment
Overall experience of life		Life satisfaction Meaning of life Emotions under "health"

- 앞으로도 EU-SILC에서 ‘삶의 질’ 추가 주제모듈은 6년마다 조사될 예정이며, ‘삶에 대한 만족도’ 항목은 매년 조사되는 항목으로 구성

세션 4

국가통계청에서의 주관적 웰빙 측정 사례

□ 국가통계청에서의 주관적 웰빙 측정사례에 대한 패널 토론

- ❖ Chaired by Conal Smith, OECD
- ❖ Jaanus Heinsar(에스토니아 통계청), Kaisa-Mari Okkonen(핀란드 통계청), Eva Menesi(헝가리 통계청), Larus Blondal(아이슬란드 통계청), Viktors Veretjanovs(라트비아 통계청), Francesco Sarracino(폴란드 통계청), Anna Szukielojc-Bienkunska(룩셈부르크 통계청), Matina Stare(슬로베니아 통계청)
- 8개국 통계청*에서의 주관적 웰빙 측정 과정 및 결과에 대한 간략한 발표 및 측정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됨
 - * 에스토니아, 핀란드, 헝가리, 아이슬란드,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폴란드, 슬로베니아
- (번역 관련 문제) 조사표의 번역과 관련하여 국가마다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단어들도 있고, 감정에 대한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으로 번역

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에 공감함

- 특히 정서경험의 항목의 경우 각 정서가(예를 들면 depressed) 의미하는 어감에서 나라별로 차이가 존재하고, 문화에 따라 표현하는 정서경험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동일한 단어로 비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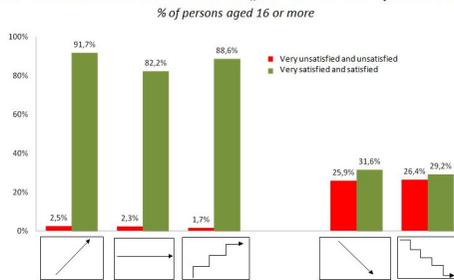
- o (척도 구성) 척도 구성에 있어서는 척도(숫자 vs. 문장, 5점 vs. 11점)에 따른 응답분포의 차이, 결과 분석사례 등의 소개와 함께 적절한 척도 구성 방안에 대해 논의함

* 폴란드 측정사례 분석결과

Numerical vs. verbal scale – distribution of responses

		verbal scale				
		very unsatisfied	unsatisfied	neutral	satisfied	very satisfied
0-10 point numerical scale	0	40.7%	45.4%	13.0%	0.9%	0.0%
	1	18.0%	58.3%	15.8%	5.8%	2.2%
	2	6.7%	57.1%	32.6%	3.6%	0.0%
	3	2.4%	26.7%	62.6%	7.8%	0.4%
	4	1.4%	16.5%	65.0%	17.0%	0.2%
	5	0.2%	4.9%	50.2%	44.1%	0.6%
	6	0.1%	1.1%	42.4%	55.2%	1.3%
	7	0.2%	0.9%	24.0%	72.8%	2.2%
	8	0.2%	0.3%	7.0%	86.5%	6.1%
	9	0.3%	0.5%	2.4%	79.8%	17.0%
	10	0.7%	0.1%	1.4%	58.8%	39.1%

LEVEL OF SATISFACTION WITH LIFE VS. „THE WAY OF LIFE” (TRAJECTORIES)*



* Based on the answers for questions:
 Are you satisfied with your life in general?
 Please, look at these picture and pick the one, that reflects in a best way how your life has been by now? Source: Social Cohesion Survey 2011

- o 주관적 웰빙의 측정의 필요성과 국가간 비교, 정책적 활용 측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며, 국가간 비교와 활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방법론적인 측면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논의함

세션 5

주관적 웰빙 자료의 정책적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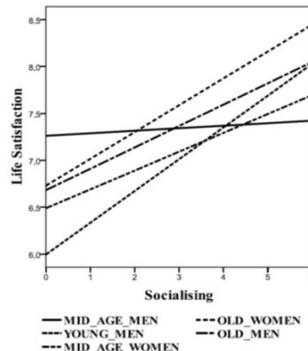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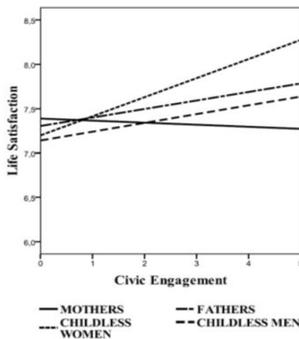
□ Heterogene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ubjective well-being and its determinants: the case of volunteering(Martin Binder, Bard College Berlin)

- 주관적 웰빙에 대한 정책입안자들의 관심은 높아지고 있음. 여러 연구결과에서 주관적 웰빙과의 관련요인들이 증명되고 있지만, 무엇이 주관적 웰빙을 강화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음
- 주관적 웰빙이 정책적 변수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측정가능하고, 우리 개선시키길 원하는 것이어야 함
 - 주관적 웰빙의 주요 결정요인은 체계적인 정책적 프레임워크가 됨

□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of using subjective indicators in policymaking

(Christian Kroll, Jacobs 대학)

-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은 사람들의 개인적인 특성(성, 연령, 지위 등)에 따라 다양



- 주관적 웰빙이 정책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1) 세부 하위집단별 영역별 모니터링이 가능, 2) 주관적 웰빙의 결정요인이 무엇인지 명확, 3)정책의 청사진을 제공, 4) 객관적 웰빙과 주관적 웰빙의 균형, 5) 허용된 자원에서 정책의 우선

순위 제공, 6) 주관적 웰빙 정책의 전략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함

□ **Health 2020 and subjective well-being**(Nils Fietje, WHO-Europe)

- Health 2020은 웰빙과 건강을 위한 유럽의 정책으로 ‘웰빙의 강화’가 중심적인 목표로 설정되고 있음
 - 이를 위한 더 나은 건강과 웰빙을 성취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의 개발과 함께 지역적 관점을 포함하고자 함
 - 전략적인 목적은 건강불평등의 감소와 정부정책의 강화임
 - WHO에서의 주관적 웰빙 측정: 삶에 대한 만족도와 함께 영역별 만족도를 포함
- 정책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유럽지역의 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하여 나라마다의 많은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 반면 국가적인 부담을 고려해서 핵심조사 항목은 최소한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는 주관적 웰빙의 개념 재정의와 함께 유데모니아와 정서경험의 측정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와 함께 문화적 차이도 같이 연구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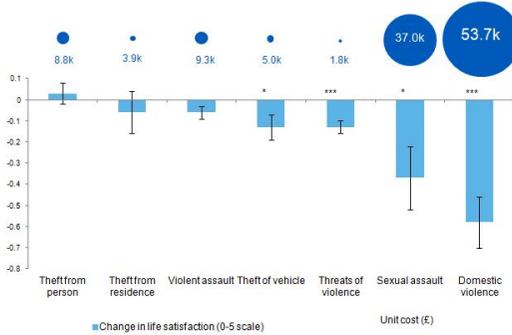
세션 6 **주관적 웰빙 자료의 정책적 적용(계속)**

- **Using subjective well-being in policy design and government decision-making**(Ewen McKinnon, 영국 내각부)
- 영국통계청에서는 주관적 웰빙 측정연구를 2010년부터 시작함
 - 주관적 웰빙이 개인들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고려해 보면 웰빙의 개선이 정부의 중요한 정책적인 목적으로 수행되어야 함
 - 측정, 분석, 평가, 규제, 우선순위 결정 등 정책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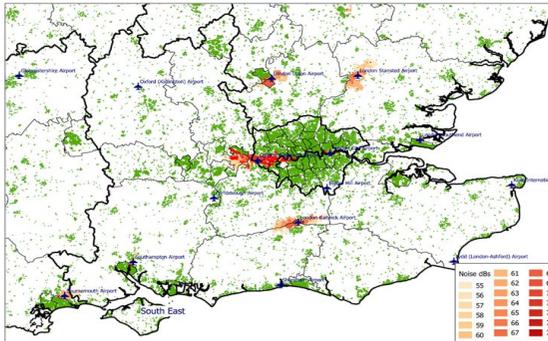
Approach	Example(s)
Direct Wellbeing Policies	Tackling loneliness, teaching resilience, supporting parenting
Measure	Adding SWB to policy surveys e.g. Crime Survey
Analyse	Analysing SWB and Green Space, Air-Quality, Flood Zones
Value/ Appraise	Valuing participation in sport and cultural activities
Evaluate	Adding SWB to evaluation of interventions for unemployed
Inform/ Engage	Using SWB data to inform messages in public health campaign
Legislation/ Regulation	Care Bill which promotes adult wellbeing
Staff Wellbeing	Wellbeing strategies to improve engagement and absenteeism
Actively reflect in policy	Tools and workshops to assess policy impact on SWB

- 예를 들면 시민서비스 실시 이후 만족도 변화, 비행기소음 지역에서의 주관적 웰빙, 국가적 사건과 주관적 만족도의 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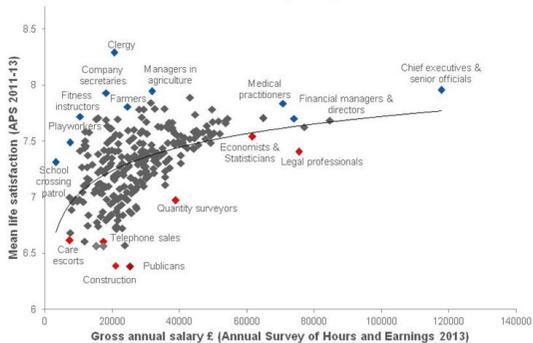
* 범죄피해와 주관적 만족도간의 관계



* 비행기소음지역과 주관적 웰빙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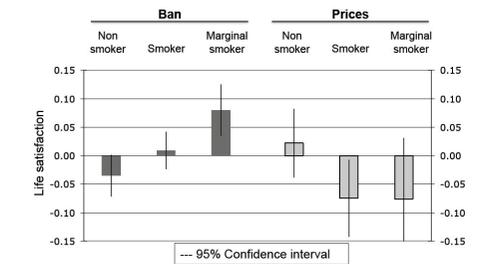
Life Satisfaction by Occupation



□ **Tabacco control policies and life satisfaction in Europe**(Alois Stutzer, Basel 대학)

- 담배통제 정책에 있어서는 크게 담배값의 인상과 흡연금지 두 개의 정책이 활용될 수 있음. 각 정책이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만족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 어떤 정책을 선호하는지를 인구하위집단별로 분석하여 이를 정책결정에 활용할 수 있음

◇ Marginal effect of bans and cigarette pri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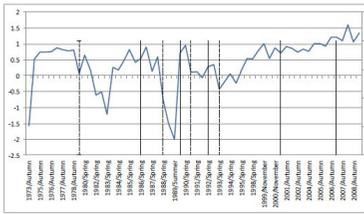
- 주관적 웰빙 자료는 정책을 평가하기 위해서 그리고 경제적인 연구의 수단으로써 가치가 있음

□ **Birth-related leave policies and their impact on subjective well-be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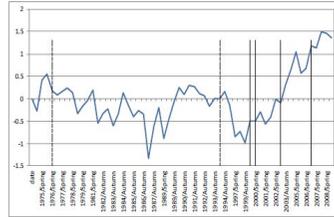
(Anna D'Addio, OECD)

- 사회정책은 개인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복지정책의 영향을 조사하는 목적으로 주관적 웰빙 관련 항목이 활용될 수 있음
- 출산휴가 정책의 실시 전과 후의 삶에 대한 만족도 변화 경향 파악을 통해서 정책의 영향과 효과를 파악할 수 있음

German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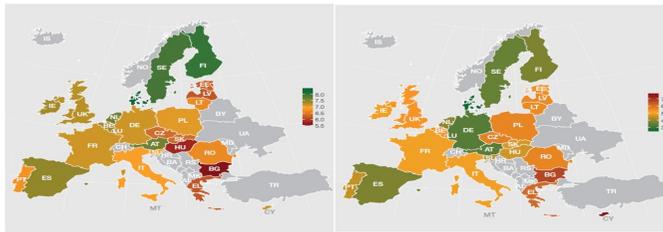
United Kingdom



☐ Policy recommendations, or policy 'pointer'? How far can well-being go in policy development? Examples from the European Quality of Life Survey

(Saamah Abdallah, 신경경제학재단(New Economics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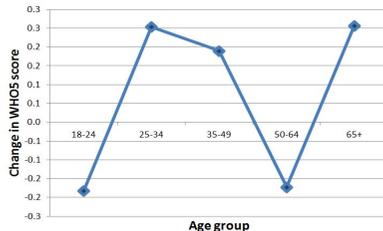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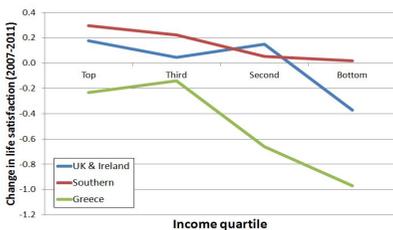
- 유럽 삶의 질 조사는 각 국가별 최소 1,000명을 조사하고 26개의 주관적 웰빙 관련 항목*을 포함하고 있어, 잠재적인 정책문제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문화간 비교가 가능함
 - * 삶에 대한 만족도, 정서경험(지난 2주동안의 정서경험, cheerful, calm, tense, depressed 등), 유데모니아(삶의 가치, 자율성, 사회적 관계, 낙관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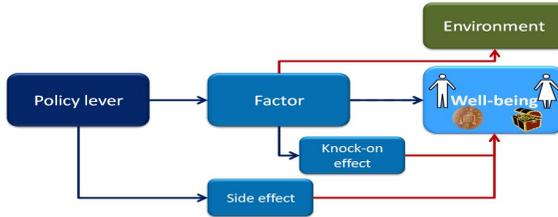
Life satisfaction

Social inclusion

- 현재 소득에 따른 주관적 웰빙의 변화, 근무시간과 만족도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등 직접적으로 정책과 연관된 활용은 없지만 유용하게 분석되고 있음



- 정책적 활용 가능성: 종사상 지위에 따른 삶의 만족도, 노동시간과 삶의 만족도, 사회적 네트워크와의 관계 등의 분석을 통해서 가능



- 향후 정책결정자와 주관적 웰빙 전문가가 서로 협력을 통해 정책적인 활용도를 높일 필요 있음

세션 7

OECD 가이드라인을 위한 다음 단계

□ 주요 패널들과 주관적 웰빙 측정을 위한 향후과제에 대한 종합토론

- ❖ Chaired by Martine Durand, OECD
- ❖ Andrew Oswald(Warwick 대학교), Paolo Pasimenni(European Commission), Niels Ploug(덴마크 통계청), Jean-Louis Mercy(Eurostat), Conal Smith(OECD)
- 주관적 웰빙 측정은 ‘더 나은 삶을 위한 발전’ 측정을 위해 중요한 부분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분야이며, 정책적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 앞으로도 이에 대한 측정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어떻게 측정하고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임을 역설함.
- 지금까지는 주관적 웰빙의 중요성과 측정방법에 대한 논의가 주로 중심이 되었다면, 앞으로는 이에 대한 활용문제, 국가간 비교가능성, 문화간 차이 극복 등이 주로 논의되어야 함을 제시함
 - 문화간 차이 극복은 국가간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중요하며, 주관적 웰빙 측정은 다른 나라와의 비교, 다른 변수들과의 비교를 통해 측정결과의 활용도를 최대화 할 수 있음
 - 주관적 웰빙은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영역들과 연관되어 있어서 정책

적으로 다양하게 활용가능하므로, 정책적 활용에 대한 폭넓은 연구가 이뤄질 필요가 있음

Ⅲ. 2015년 아-태 지역 주관적 웰빙 워크숍 개최 관련 논의

□ 일 시 : '14.6.24.(화), 17:30 ~ 18:30

□ 참석자 : 황수린주무관, 심수진주무관,
Conal Smith(OECD 가구통계 및 발전측정부서장),
Carrie Exton(OECD 웰빙측정 Analyst)

□ 주요 논의내용

○ 업무분장

- 회의 어젠다 선정* 및 프로그램 구성, 참석자 초청, 기타 회의자료 작성 등은 OECD측 주도로 진행하며,
- 회의장소, 중식(2회) 및 커피(4회) 제공, 학계인사 재정지원(2명 이내, 항공료 및 숙박)은 한국 통계청이 담당하기로 협의
- * 워크숍의 대주제는 타 지역 워크숍과 동일한 "주관적 웰빙 측정사례와 정책적 활용"으로 선정하되,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 세부 세션별 주제는 변경가능

○ 참가국 관련

- OECD측은 내년도 워크숍 참가인원으로 60여명을 예상하며, '14년 9월 경 1차 초청장을 배포할 계획임
- 개도국 인사 초청관련 및 기타 세부사항은 추후 협의하기로함
- * 주요 예상 참가국 : 호주, 일본, 중국, 뉴질랜드, 홍콩, 싱가포르, 부탄, 인도 등

○ 환영사 및 발표연사 관련

- OECD측은 한국 통계청 인사가 환영사를 담당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기조연설은 유력 학계인사 중 OECD측에서 섭외예정
- * OECD측 연사로는 Conal Smith, Carrie Exton 예정

○ 워크숍 개최 일자 관련

- 한국 통계청은 '15년 상반기에 주요 통계위원회(UN 및 OECD 등) 참가가 예정되어 있고, '15년 11월 인구주택총조사가 실시됨을 감안, 워크숍의 충실한 준비를 위하여 개최일자를 '15년 11월 하순으로 제안하였음
- OECD측은 이를 검토 후 추후 확정할 것을 약속함

IV. 행사 운영부문별 시사점

□ 회의장

- 총 80여석 규모의 회의장으로 OECD 본부 지하 1층(Room: CC2)에 위치
* 양 사이드 벽쪽으로 의자만 있는 좌석 포함시 100석 규모
- 토론에 적합한 □자형 좌석배치로 발표자를 위한 연단이 따로 있지 않고, 전면 스크린 앞쪽으로 발표자 및 좌장 등 배치
 - 연사발표시 본인의 발표화면을 볼 수 있는 연사용 PDP가 설치



회의장 전경



연사용 PDP 등

□ 워크숍 홍보물 등

- OECD 건물 내부에 워크숍을 알리는 배너, 브로셔 등은 없었으며, 회의실 앞 전자 게시판에 회의명과 일시 등 게시
- 회의자료(발표자료집, 브로셔) 등은 제공되지 않고, 연사 발표자료도 회의 종료 후 이메일로 송부



회의장 입구



전자 게시판

□ 중식 및 커피브레이크

- 중식은 회의개최 기간 중(6.24.~6.25.) 양일 OECD 본부 1층 구내식당에서 제공되었음
 - 전체, 본요리, 디저트, 음료, 빵을 골라 먹을 수 있는 식권(쿠폰)을 제공하였으며, 가격은 11유로임 (원화 15천원 상당)
 - 지정된 좌석에서 함께 먹는 오찬형식이 아닌 배부된 식권으로 개별적으로 식사
- 커피브레이크는 1일 2회 제공되었으며, 품목은 커피, 홍차로, 쿠키 등은 제공되지 않음



□ 칵테일 파티

- 워크숍 1일차 저녁(18:00~19:00), 핑거푸드, 음료 및 와인 등이 제공되고 OECD 담당자의 간단한 인사 후 자유롭게 사교



칵테일 디너

핑거푸드 및 음료

□ 기타

- 카자흐스탄 대표단 및 OECD 담당자 등 면담인사 명함



주요 면담인사 명함

V. 참가소감 등

- 주관적 웰빙은 GDP를 보완하는 사회발전 측정인 ‘웰빙’을 구성하는 독립된 단위영역으로 개인들의 주관적인 만족도와 감정을 측정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음
 - 유럽지역 국가통계청에서는 주관적 웰빙 측정과 관련하여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방법론적인 문제, 측정과정에서의 문제, 결과의 다양한 분석, 정책적인 활용 등 다양한 방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사회발전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주관적 웰빙의 측정과 이에 대한 이니셔티브가 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주관적 웰빙 측정의 방법론적 측면과 관련해서 제기되는 문제들이 대부분 번역, 척도구성, 측정항목 등 거의 유사하므로, 다양한 국가들의 연구사례 등에 대한 검토가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유럽지역 내에서도 번역 및 문화간 차이로 인한 문제들이 존재하며, 척도의 구성도 다양한 방식으로(5점, 6점, 10점, 11점 등) 이루어지고 있어 국가간 비교가능성의 제한점으로 작용하고 있음
 - 결과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국가간 비교가능성을 높이고, 측정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국가들의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
 - 기존의 방법론적인 측면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결과는 향후 관련 조사 항목의 개발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됨
- 2015년 아-태 지역 주관적 웰빙 워크숍 개최 관련
 - OECD 통계국장(Martine Durand)은 환영사 등을 통해 내년도 한국 통계청의 아.태지역 워크숍 개최에 대한 감사를 표명하였으며,
 - 동 워크숍에 참가한 카자흐스탄 대표단, 갤럽 등 민간기관에서도 한국 개최 워크숍에 참가 희망의사를 전달하는 등 내년도 아.태지역 워크숍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관찰되어 향후 OECD측과 협의를 통해 내실 있는 준비를 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임

- 다만, 동 회의는 전문가 중심의 실무급 워크숍으로 회의운영 및
부대행사 등 여러 측면에서 간소화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됨
 - * 아메리카 지역 주관적웰빙 워크숍('13.9.22(1일), 뉴욕 컬럼비아 대학교)
 - 따라서 '15년 우리청 개최 아시아-태평양 워크숍도 서울(호텔급)
보다는 대전 통계센터 등을 활용하는 등 외연보다 컨텐츠 위주운영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참고> 워크숍 프로그램

2014. 6. 23. 월요일	
시간	의제
9:30-10:00	▪ 등록 및 커피
10:00-11:00	▪ 환영사, 인사말 - Martine Durand(OECD, 통계국장) - Eduardo Barredo(Eurostat, 사회통계국장) - Gus O'Donnell(Legatum Institue 웰빙위원회)
11:00-12:30	▪ Session 1: 워크숍 개관 - 좌장: Martine Durand(OECD, 통계국장) - 사회지표가 유럽정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주관적 웰빙은 어디에서 역할을 수행하는가? (Paolo Pasimeni, European Commission) - 주관적 웰빙을 왜 측정하는가? (Andrew Oswald, University of Warwick) - OECD 주관적 웰빙 측정 가이드라인 (Conal Smith, OECD)
12:30-13:30	▪ 점심 휴식
13:30-15:40	▪ Session 2: 방법론적 이슈 - 좌장: Marco Mira D'Ercole(OECD, 통계부) - 개인의 웰빙을 측정하기 위한 영국의 방법론적 접근 (Glenn Everett, 영국통계청) - 조사표는 어떻게 답변을 형성하고, 조사방법에서 왜 중요한가? (Carrie Exton, OECD) - 주관적 웰빙 조사표의 실험 (Linda Moonen, 네덜란드 통계청) - 전 세계에서 주관적 웰빙 측정의 실질적인 문제점 (Pablo Diego Rosell, 갤럽)
15:40-16:00	<i>Coffee Break</i>
16:00-18:00	▪ Session 3: 측정 방법 - 좌장: Alexandre Kolev(OECD, 개발 센터) - 'How's Austria?'에서의 주관적 지표- 측정과 결과 (Franz Eiffe, 오스트리아 통계청) - 프랑스 생활시간조사에서 주관적 웰빙 포함 (Laura Castell, 프랑스 통계청) -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웰빙 보고서'와 이탈리아 통계청의 주관적 웰빙 측정 접근 (Adolfo Morrone, 이탈리아 통계청) - EU-SILC 2013의 추가 모듈 '주관적 웰빙'에 대한 개관 (Jean-Louis Mercy, Eurostat)
18:00-19:00	▪ Networking drinks

2014. 6. 24. 화요일	
시간	의제
09:00-10: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ssion 4: 국가 통계청에서의 주관적 웰빙 측정과 발표 경험 - 패널 토론, 좌장: Conal Smith(OECD, 통계국) - Jaanus Heinsar(에스토니아 통계청) - Kaisa-Mari Okkonen(핀란드 통계청) - Eva Menesi(헝가리 통계청) - Larus Blondal(아이슬란드 통계청) - Viktors Veretjanovs(라트비아 통계청) - Francesco Sarracino(룩셈부르크 통계청) - Anna Szukielojc-Bienkunska(폴란드 통계청) - Matina Stare(슬로베니아 통계청)
10:50-11:10	<i>Coffee Break</i>
11:10-1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ssion 5: 주관적 웰빙 데이터의 정책 적용 - 좌장: Romina Boarini(OECD, 통계국) - 주관적 웰빙과 결정요인과의 이질성: 자원봉사 사례 (Martin Binder, Bard College Berlin) - Health 2020와 주관적 웰빙 (Nils Fietje, WHO 유럽) - 정책입안에서의 주관적 지표 사용의 기회와 도전 (Jan Delhey, Jacobs University Bremen; Christian Kroll, Jacobs University and Betelsmann Stiftung) - 주관적 웰빙의 가치와 OECD의 '포괄적 성장' 프로젝트 (Fabrice Murtin, OECD)
13:00-14:00	▪ 점심 휴식
14:00-15: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ssion 6: (계속) - 좌장: Dominic Richardson(OECD, 고용·노동·사회국) - 정책 설계에서 주관적 웰빙 사용과 정부의 의사결정 (Ewen McKinnon, 영국 국무조정실) - 유럽의 담배 제어정책과 삶에 대한 만족도 (Alois Stutzer, University of Basel) - 출산장려정책과 그에 따른 주관적 웰빙의 영향 (Anna D'Addio, OECD) - 정책 권고 또는 정책 '지향'? 정책 발전에 웰빙이 어디까지 접근할 수 있을까? 유럽의 삶의 질 조사 사례 (Saamah Abdallah, New Economics Foundation)
15:50-16:10	<i>Coffee Break</i>
16:10-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ssion 7: OECD 가이드라인의 향후 계획 - 폐회식, 좌장: Martine Durand(OECD) - Andrew Oswald(Warwick University) - Paolo Pasimenni(European Commission) - Niels Ploug(덴마크 통계청) - Jean-Louis Mercy(Eurostat) - Conal Smith(OECD)